

초등학생 어머니의 성격유형에 따른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

고효정¹ · 권윤희² · 김민영³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교수¹, 대구과학대학 간호과 교수², 대경대학 간호과 교수³

A Study on Parenting Attitude and Stress according to Personality Typ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Mothers

Koh, Hyo Jung¹ · Kwon, Yunhee² · Kim, Min Young³

¹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²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Taegu Science College,

³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Taekyeung College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xamine parenting attitude and stress according to personality typ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mothers. **Methods:** The subjects consisted of 206 mothers of students. The measurement instrument was the questionnaire consisting of Korean-version MBTI and PSI test. Data was collected from March 15th to April 15th, 2008. **Results:** Among personality types by function, ST type was most, occupying 60.2%. Among personality types by temperament, SJ type was most, occupying 59.2%. The score of affective attitude was highest among the parenting attitudes. Parenting attitud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age, education, economic status, number of children, planned pregnancy, factor of stress, and family type. Parenting stres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planned pregnancy and factor of stress. In parenting attitudes by personality types, affective attitud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Parenting stres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personality type by function.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ffective and autonomic attitudes and parenting stress.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rejective attitude and parenting stress. **Conclusion:** It would be essential to provide dynamic developmental programs for increasing the children's social ability, and nursing intervention, education and counseling programs for decreasing parenting stress through understanding mothers' personality type.

Key Words : Personality type, Parenting attitudes, Parenting stress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가족의 기능은 애정, 생식, 경제적, 사회화, 보호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Kim, et al., 2008), 특히 자녀들을 양육함으로써 고유한 가치관과 사회관을 심어주고, 문화를 전달하여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회화기능에서는 자녀가 사회적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는 부모의 양육 요소가 강조

되어 있다. 선행연구(Waters, Garber, & Vaughn, 1983; Zigler & Trikett, 1978)에 의해 사회적 능력은 사회적 상황에서 협동적 또는 반사회적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되며, 사회적 발달을 설명하고 개인의 행위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켜 줄 수 있다고 하였다. Maccoby와 Martin(1983)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기본적으로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되며, 사회적 행동양상은 부모에게서 배우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였다.

부모와 자녀관계는 인간의 성장, 발달, 성숙에 있어서 가장

주요어 : 성격유형, 양육태도, 양육스트레스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won, Yunhee, Department of Nursing, Taegu Science College, 390 Taejeon-dong, Buk-gu, Daegu 702-723, Korea.
Tel: 82-53-320-1056, Fax: 82-53-320-1530, E-mail: sengbira@hanmail.net

투고일 : 2009년 3월 19일 게재확정일 : 2009년 5월 27일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인간관계 중 가장 전면적, 보편적, 영구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부모의 양육방법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권위적인 양육태도를 지닌 부모의 아동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허용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동은 대체로 미숙하며 사회적 책임감이 낮고, 권위가 있으면서 애정을 지닌 부모의 아동은 사회적 책임감이 강하고 유능하면서 독립적이라고 하였다(Baumrind, 1971). 특히 전통적으로 부모 중 어머니가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시간이 많았으며, 오늘날 취업 모성이 증대되었지만 여전히 아버지보다 자녀양육 역할 비중이 어머니에게 많은 편이다. 따라서 아동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로 아동의 자율성과 성취감을 자극할 때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역할 수행과정에서 어머니는 다양한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아동의 문제행동 또는 우울(Song, 1998) 등의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Koh(1994)는 양육스트레스를 자녀양육 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가족체계가 직면하는 발달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예상되는 스트레스라고 하였고, Abidin(1992)은 양육역할 수행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스트레스라고 정의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요인으로 학력(Kim & Yoon, 2000), 연령(Kim, 1990), 경제적 지원, 어머니의 전통적 역할관과 역량(Kang & Cho, 1999), 어머니의 우울성향(Koh, 1994), 효능감(Shin & Chung, 1998) 요인에 대한 연구결과가 보고되어졌다. 어머니의 성격요인과 관련된 연구에서, Choi(1993)는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이 조화로울수록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작으며 아동에게 애정적 태도를 보였다고 보고한 것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성격에 따라 양육태도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Han과 Park(1996)은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조화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용한 예측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연구한 결과, 어머니와 자녀간의 기질적 부조화 정도가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어머니와 자녀간의 기질적 부조화 즉 어머니 자신의 성격유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함으로써 자녀의 사회적 능력 형성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또한 자녀도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결과적으로 부모-자녀관계에서 부정적 결과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성격유형에 따라 양육태도가 차이가 있다는 이론(Penley &

Stephens, 1998)에 근거 하여 연구된 것은 부모의 성격에 따른 양육태도를 자녀의 학습지도에 연결한 연구(Kim, 2001)가 있었으나 성격유형과 양육스트레스 관련 연구는 드문 편이었다. Han과 Park(1996)의 연구에서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적 부조화 정도가 양육스트레스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에서 어머니의 성격 선호유형이 양육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기능과 기질로 분류되는 MBTI로 검사된 성격유형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차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어머니의 성격유형에 따른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를 확인하여, 어머니 자신의 성격유형을 이해하여 아동의 사회적 능력 개발과 형성에 기여하는 긍정적이고 적절한 양육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더불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간호와 교육중재 및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초등학교 어머니의 성격유형에 따른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성격유형에 따른 양육태도 차이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성격유형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차이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확인한다.

3. 용어정의

1) 성격유형

개인이 지속적이고 일관성을 가지고 더 쉽고 편안하게 사용하는 타고난 성격유형 선호 경향을 말하며(Myers & Myers, 1980), 본 연구에서는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검사로 Kim과 Shim(1990)이 한국 사람에게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일반화된 도구로 검사한 성격유형을 의미한다.

2) 양육태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지니고 있는 태도를 의미하며(Schaefer, 1958), 본 연구에서 는 Schaefer(1958)의 MBRI(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를 Lee(1983)가 번안한 것을 Oh(2006)가 수정·보완하여 양육태도를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 양육스트레스

부모역할 수행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스트레스이며 (Abidin, 1990), 본 연구에서는 Abidin(1990)이 제작한 PSI (Parenting Stress Index)를 Bae(1993)가 번안한 것을 Yang (2001)이 수정 · 보완하여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할 점수를 의미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초등학교 어머니의 성격유형에 따른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연구대상자는 D광역시 서구지역 12개 초등학교에 협조요청을 한 후 연구를 허락한 4개 초등학교 학부모회에 가입되어 있는 어머니 230명 전수를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자료처리는 부적절한 24부를 제외한 206부에 대해 실시하였다.

3. 연구도구

1) 어머니의 성격유형 검사

성격유형은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검사로 Kim과 Shim(1990)이 한국인에게 맞도록 수정 · 보완한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어진 표준화된 질문지형 검사로써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판 Form G MBTI 검사지는 94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성격유형 분류는 인식기능(sensing, intuition)과 판단기능(thinking, feeling)을 조합하여 인간관계를 맺는 양상이나 업무 처리의 양상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감각적 사고형(sensing-thinking), 감각적 감정형(sensing-feeling), 직관적 사고형(intuition-thinking), 직관적 감정형(intuition-feeling) 등 네 가지의 기능별 성격유형과 인식기능(sensing, intuition)과 외부세계의 대처양식(judging, perceiving)을 조합하여 인간관계 등 외부세계와의 대처행동 양상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감각적 판단형(sensing-judging), 감각적 인식형(sensing-perceiving), 직관적 사고형(intuition-thinking), 직관적 감정형(intuition-feeling) 등 네 가지의 기질별 성격유형이다.

2) 양육태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양육태도 조사도구는 Schaefer(1958)의 MBRI(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를 Lee(1983)가 번안한 것을 Oh(2006)가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애정적 태도, 거부적 태도, 자율적 태도, 통제적 태도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의 44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요인은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태도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Oh(2006)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9$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 이었다.

3) 양육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Abidin(1990)이 제작한 PSI(Parenting Stress Index)를 Bae(1993)가 번안한 것을 Yang(2001)이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한 아동영역 12문항, 부모영역 12문항 총 24문항으로 구성된 것을 사용하였다.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0$ 이었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08년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초등학교에 방문하여 학교장에게 연구의 의의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여 학부모회 회장을 소개받아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학부모회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협조를 구하여 전체 학부모회의 개최시간에 연구자가 방문하였다. 참석한 학부모에게 성격유형(MBTI) 검사자격증을 소유한 연구자가 연구에 대해 연구목적, 익명성의 보장, 연구참여자로서의 권리 등을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수거하였으며, 설문작성 소요시간은 30 ~ 40분이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처리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구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격유형 분포는 빈도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따른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

스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 검증은 Scheffe's test로 하였다.

- 대상자의 성격유형에 따른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 차이는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 검증은 Scheffe's test로 하였다.
- 대상자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격유형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은 36 ~ 40세가 36.9%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 정도는 고졸 24.8%, 전문대졸 18.9%, 대졸 48.5%, 대학원 이상 7.8%로 대졸이 가장 많았다.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가 96.6%, 사별 3.4%로 나타났으며, 직업 유무에서 유 46.6%, 무 53.4%로 나타났으며, 경제상태는 높음 49.5%, 보통 45.1%, 매우 높음 2.9%, 낮음 2.4%로 높음이 가장 많았다. 자녀수는 2~3명이 76.7%로 가장 많았으며, 계획된 임신 여부에서는 대상자의 67.0%가 계획된 임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형태는 자연분만 81.1%, 제왕절개 18.9%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최고 스트레스 요인은 아이양육 49.5%, 경제적 부분 24.3%, 시댁과의 관계 12.1%로 아이양육이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부부와 자녀형태가 89.8%로 가장 많았다.

2) 대상자의 성격유형

대상자의 성격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지표별 성격유형은 에너지의 방향을 알 수 있는 외향성(extra-version) 35.0%, 내향성(introversion) 65.0%, 선호 인식기능을 나타내는 감각형(sensing) 88.3%, 직관형(intuition) 11.7%로 나타났다. 판단기능을 알 수 있는 사고형(thinking) 62.1%, 감정형(feeling) 37.9%, 생활양식을 알 수 있는 판단형(judging) 60.2%, 인식형(perceiving) 39.8%로 나타났다. 기능별 성격유형은 감각적 사고형 60.2%, 감각적 감정형 29.6%, 직관적 사고형 1.9%, 직관적 감정형 8.3%로 감각적 사고형이 가장 많았다. 기질별 성격유형은 감각적 판단형 59.2%, 감각적 인식형 29.1%, 직관적 사고형 1.9%, 직관적 감정형 8.3%로 감각적 판단형이 가장 많았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 20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yrs)	< 30	6 (2.9)
	31 ~ 35	59 (28.6)
	36 ~ 40	76 (36.9)
	41 ~ 45	46 (22.3)
	> 46	19 (9.2)
Education	High school	51 (24.8)
	College	39 (18.9)
	University	100 (48.5)
	≥ Graduate	16 (7.8)
Marital status	Married	199 (96.6)
	Widowed	7 (3.4)
Occupation	Being	96 (46.6)
	None	110 (53.4)
Economic status	Low	5 (2.4)
	Moderate	93 (45.1)
	High	102 (49.5)
	Very high	6 (2.9)
Number of children	1 person	45 (21.8)
	2 ~ 3 persons	158 (76.7)
	> 4 persons	3 (1.5)
Planned pregnancy	Yes	138 (67.0)
	No	68 (33.0)
Delivery	Natural birth	167 (81.1)
	Cesarean section	39 (18.9)
Factor of stress	Parenting	102 (49.5)
	Finance	50 (24.3)
	Relation with husband	7 (3.4)
	Relation with husband's family	25 (12.1)
	Others	22 (10.7)
Family types	Nuclear family	185 (89.8)
	Mother and child	8 (3.9)
	Large family with husband's home	9 (4.4)
	Large family with wife's home	4 (1.9)

Table 2. Personality Type of Subjects

(N = 206)

Personality types	Categories	n (%)
Index	Extraversion	72 (35.0)
	Introversion	134 (65.0)
	Sensing	182 (88.3)
	Intuition	24 (11.7)
	Thinking	128 (62.1)
	Feeling	78 (37.9)
	Judging	124 (60.2)
	Perceiving	82 (39.8)
Function	Sensing-thinking	118 (60.2)
	Sensing-feeling	64 (29.6)
	Intuition-thinking	6 (1.9)
	Intuition-feeling	18 (8.3)
Temperament	Sensing-judging	122 (59.2)
	Sensing-perceiving	60 (29.1)
	Intuition-thinking	6 (2.9)
	Intuition-feeling	18 (8.7)

2. 대상자의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

대상자의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양육태도는 최대 55점 기준으로 하여 애정적 양육태도 40.5점, 거부적 양육태도 32.9점, 자율적 양육태도 35.5점, 통제적 양육태도 39.1점으로 나타나 애정적 양육태도가 가장 높아 자녀를 온정과 사랑으로 양육하는 어머니의 태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는 최대 120점을 기준으로 55.8점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60점 기준으로 하위영역인 아동특성 양육스트레스는 27.3점, 부모특성 양육스트레스는 28.5점으로 나타나, 부모특성 요인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 Parenting Attitudes and Stress of Subjects (N = 206)

Variables	Min	Max	M ± SD
Affective attitude	26.0	52.0	40.5 ± 5.57
Rejective attitude	19.0	43.0	32.9 ± 4.94
Autonomic attitude	25.0	35.5	35.5 ± 4.85
Regulation attitude	25.0	39.1	39.1 ± 4.25
Children's characteristic	12.0	27.3	27.3 ± 5.26
Mother's characteristic	15.0	28.5	28.5 ± 5.98
Parenting stress	27.0	55.8	55.8 ± 10.45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의 차이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연령에 따라 통제적 양육태도 차이($F = 4.13, p = .003$)가 있었으며, 교육정도에 따라서는 애정적 양육태도($F = 3.00, p = .032$)와 통제적 양육태도 차이($F = 4.18, p = .007$)가 있었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애정적 양육태도 차이($F = 9.15, p = .003$)가 있었으며, 경제상태에 따라서 애정적 양육태도($F = 7.10, p = .000$), 자율적 양육태도($F = 2.80, p = .037$), 통제적 양육태도 차이($F = 2.90, p = .035$)가 있었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거부적 양육태도 차이($F = 4.60, p = .010$)가 있었으며, 계획된 임신여부에 따라서는 통제적 양육태도 차이($t = 2.10, p = .038$)가 있었다. 최고 스트레스 요인에 따라서는 애정적 양육태도($F = 2.60, p = .035$), 거부적 양육태도($F = 4.80, p = .001$),

통제적 양육태도 차이($F = 6.10, p = .000$)가 있었으며,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애정적 양육태도($F = 4.70, p = .003$), 거부적 양육태도 차이($F = 3.60, p = .013$)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특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에서는 36 ~ 40세 대상자가 40.6점으로 통제적 양육태도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교육정도에 따라서는 대학원 이상 대상자가 43.1점으로 애정적 양육태도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또한 통제적 양육태도 점수가 42.6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유배우자 대상자가 40.7점으로 사별 대상자에 비해 애정적 양육태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상태에 따라서는 중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41.7점으로 애정적 양육태도가 가장 높았으며, 자율적 양육태도(36.2점)와 통제적 양육태도 점수(39.9점)도 중상의 경제상태 대상자들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4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대상자가 거부적 양육태도 점수가 37.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계획된 임신을 한 대상자들에게서 통제적 양육태도가 39.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고 스트레스 요인에 따라서는 남편과의 관계가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이 44.4점으로 자녀에 대한 애정적 양육태도가 높았으며, 아이양육이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이 39.9점으로 애정적 양육태도 점수가 가장 낮았다. 아이양육과 남편과의 문제를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인 경우에 34.1점으로 자녀들에 대한 거부적 양육태도가 가장 높았으며, 또한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인 경우에 45.4점으로 통제적 양육태도 점수가 가장 높았다.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친정과의 대가족 형태에서 애정적 양육태도가 45.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모자 형태에서는 35.1점으로 거부적 양육태도 점수가 가장 높았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계획된 임신 여부($t = -2.00, p = .037$), 최고 스트레스 요인($F = 7.50, p = .000$)에 따라 유의한 양육스트레스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계획된 임신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에게서 양육스트레스가 58.0점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아이양육 요인이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이 양육스트레스가 59.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성격유형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

대상자의 성격유형에 따른 양육태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4. Parenting Attitudes by Characteristic of Subjects

(N = 206)

Characteristics	Categories	Parenting attitudes							
		Affective		Rejective		Autonomic		Regulation	
		M ± SD	t or F (p)	M ± SD	t or F (p)	M ± SD	t or F (p)	M ± SD	t or F (p)
Age (yrs)	< 30 ^a	44.0 ± 3.3		31.0 ± 6.6		37.5 ± 0.5		38.5 ± 0.5	
	31 ~ 35 ^b	41.1 ± 6.0		33.2 ± 5.2		35.6 ± 5.0		38.3 ± 4.2	
	36 ~ 40 ^c	40.7 ± 4.3	1.49 (.206)	34.0 ± 4.2	2.33 (.057)	34.8 ± 4.9	0.92 (.452)	40.6 ± 3.8	4.13 (.003)
	41 ~ 45 ^d	39.8 ± 6.4		31.6 ± 5.6		36.0 ± 4.7		38.6 ± 3.8	c > e*
	> 46 ^e	38.7 ± 6.3		31.6 ± 3.5		36.2 ± 5.0		37.5 ± 5.8	
Education	High school ^a	39.4 ± 6.2		32.6 ± 4.6		34.2 ± 4.3		39.1 ± 4.5	
	College ^b	39.3 ± 6.3	3.00 (.032)	33.3 ± 4.6	0.13 (.939)	36.1 ± 4.8	1.80 (.148)	38.6 ± 3.7	4.18 (.007)
	University ^c	41.2 ± 4.9	d > a, b*	32.9 ± 5.3		35.7 ± 4.7		38.8 ± 4.1	d > b*
	≥ Graduate ^d	43.1 ± 3.5		33.0 ± 4.6		36.8 ± 6.1		42.6 ± 4.3	
Marital status	Married	40.7 ± 5.4	9.15 (.003)	32.9 ± 4.9	1.38 (.240)	35.5 ± 4.8	0.42 (.518)	39.3 ± 4.2	3.79 (.053)
	Widowed	34.4 ± 5.1		35.1 ± 3.0		36.7 ± 3.5		36.1 ± 1.1	
Occupation	Being	40.1 ± 6.0	-1.00 (.300)	32.8 ± 4.7	-0.30 (.712)	35.7 ± 4.7	0.50 (.570)	39.7 ± 4.3	1.80 (.066)
	None	40.9 ± 5.1		33.1 ± 5.1		35.3 ± 4.9		38.6 ± 4.1	
Economic status	Low ^a	32.2 ± 7.1		36.4 ± 4.9		31.2 ± 4.3		39.4 ± 0.5	
	Moderate ^b	40.0 ± 5.6	7.10 (.000)	33.2 ± 5.2	1.70 (.160)	35.1 ± 5.0	2.80 (.037)	38.5 ± 4.1	2.90 (.035)
	High ^c	41.7 ± 5.0	b > a*	32.7 ± 4.7		36.2 ± 4.6	c > a*	39.9 ± 4.1	c > d*
	Very high ^d	36.6 ± 6.5		30.0 ± 3.4		33.0 ± 4.5		36.1 ± 6.2	
Number of children	1 person	40.8 ± 5.9		34.6 ± 4.7	4.60 (.010)	34.9 ± 5.6		39.7 ± 4.1	
	2 ~ 3 persons	40.4 ± 5.5	0.60 (.509)	32.4 ± 4.9	c > b*	35.7 ± 4.6	0.80 (.441)	39.0 ± 4.3	0.50 (.568)
	> 4 persons	44.0 ± 1.7		37.0 ± 4.1		33.3 ± 0.5		40.0 ± 1.7	
Planned pregnancy	Yes	40.5 ± 4.8	0.10 (.994)	32.6 ± 4.8	-1.50 (.117)	35.6 ± 4.7	0.40 (.671)	39.6 ± 4.1	2.10 (.038)
	No	40.5 ± 6.8		33.7 ± 5.1		35.3 ± 5.0		38.3 ± 4.3	
Delivery	Natural birth	40.2 ± 5.8	-1.90 (.054)	33.2 ± 4.8	1.30 (.181)	35.6 ± 4.8	0.40 (.683)	38.9 ± 4.1	-1.40 (.153)
	Cesarean section	42.1 ± 3.9		32.0 ± 5.2		35.2 ± 5.0		40.0 ± 4.7	
Factor of stress	Parenting ^a	39.9 ± 4.6		34.1 ± 4.4		34.9 ± 5.1		39.1 ± 4.1	
	Finance ^b	39.6 ± 7.4		32.6 ± 4.6		36.5 ± 4.2		38.6 ± 4.5	
	Relation with husband ^c	44.4 ± 5.4	2.60 (.035)	34.1 ± 3.7	4.80 (.001)	32.2 ± 1.7	2.30 (.058)	45.4 ± 1.5	6.10 (.000)
	Relation with husband's family ^d	42.3 ± 4.9	c > b*	31.8 ± 7.2	a, c > d*	35.4 ± 5.6		37.4 ± 4.2	c > d*
	Otherse ^e	42.2 ± 4.2		29.5 ± 2.7		37.0 ± 3.2		40.5 ± 2.3	
Family types	Nuclear family ^a	40.7 ± 5.5		33.1 ± 5.0		35.4 ± 5.0		39.3 ± 4.2	
	Mother and child ^b	34.2 ± 4.7		35.1 ± 2.7		37.0 ± 3.3		35.7 ± 1.4	
	Large family with husband's home ^c	40.5 ± 2.8	4.70 (.003)	31.3 ± 2.3	3.60 (.013)	35.8 ± 3.1	0.30 (.804)	39.0 ± 5.2	1.80 (.134)
	Large family with wife's home ^d	45.5 ± 3.0	d > b*	26.0 ± 2.0	b > d*	36.5 ± 3.0		39.7 ± 3.5	

* Scheffe's test

기능별 성격유형에 따라 유의한 양육태도 차이는 없었으며, 기질별 성격유형에 따라서는 애정적 양육태도 차이가 있었다($F = 2.70, p = .046$).

기질별 성격유형에 따라서 유의한 양육태도 차이를 살펴보면, 애정적 양육태도 점수가 직관적 감정형 대상자들이 42.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에 직관적 사고형 대상자들은 35.0점으로 가장 낮았다.

4) 대상자의 성격유형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

대상자의 성격유형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기능별 성격유형에 따라 유의한 양육스트레스 차이가 있었으며($F = 7.08, p = .000$), 기질별 성격유형에 따라서는 유의한 양육스트레스 차이가 없었다.

기능별 성격유형에 따라서 유의한 양육스트레스 차이를 살펴보면, 양육스트레스 점수가 직관적 사고형 59.1점, 직관적 감정

Table 5. Parenting Stress by Characteristic of Subjects
(N = 206)

Characteristics	Categories	M ± SD	F (p)
Age (yrs)	< 30	56.5 ± 0.54	1.98 (.099)
	31 ~ 35	56.0 ± 10.70	
	36 ~ 40	57.6 ± 9.76	
	41 ~ 45	52.2 ± 10.62	
	> 46	56.8 ± 11.64	
Education	High school	57.5 ± 9.37	0.65 (.579)
	College	55.0 ± 8.44	
	University	55.2 ± 11.49	
	≥ Graduate	56.2 ± 11.57	
Marital status	Married	40.7 ± 5.48	0.06 (.800)
	Widowed	34.4 ± 5.12	
Occupation	Being	55.4 ± 11.22	-0.50 (.600)
	None	56.2 ± 9.77	
Economic status	Low	62.8 ± 7.12	1.71 (.165)
	Moderate	55.8 ± 11.69	
	High	55.1 ± 9.13	
	Very high	62.5 ± 11.29	
Number of children	1 person	57.8 ± 11.51	1.91 (.149)
	2 ~ 3 persons	55.1 ± 10.13	
	> 4 persons	63.0 ± 5.19	
Planned pregnancy	Yes	54.8 ± 10.23	-2.09 (.037)
	No	58.0 ± 10.64	
Delivery	Natural birth	56.4 ± 10.16	1.68 (.093)
	Cesarean section	53.3 ± 11.41	
Factor of stress	Parenting ^a	59.1 ± 10.60	7.59 (.000) a > e*
	Finance ^b	54.6 ± 7.87	
	Relation with husband ^c	57.1 ± 10.54	
	Relation with husband's family ^d	50.4 ± 12.29	
	Other ^e	49.0 ± 6.12	
Family types	Nuclear family	56.0 ± 10.62	1.23 (.299)
	Mother and child	56.8 ± 7.69	
	Large family with husband's home	49.4 ± 3.46	
	Large family with wife's home	57.7 ± 15.50	

* Scheffe's test

형 57.7점, 감각적 사고형 55.2점, 직관적 감정형 49.1점으로 직관적 사고형 대상자가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대상자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대상자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애정적 양육태도($r = -.340, p = .000$), 자율적 양육태도($r = -.346, p = .000$)와 양육스트레스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거부적 양육태도($r = .599, p = .000$)와 양육스트레스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일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고,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일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논 의

일반적 특성에서 본 연구의 대상자 65.0% 이상이 전문대졸 이상으로 여성의 고학력이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직업이 있는 어머니가 46.6%로 나타나 많은 주부가 직업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상자의 49.5%가 최고 스트레스 요인이 아이양육에 대한 것이라는 결과는 현실적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2003년 이화여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녀 출산 계획과 한국사회의 출산-양육환경’ 설문조사 결과에서 31.5%가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를 48.5%가 ‘부모가 된다는 것에 자신 없고, 자녀 양육의 부담이 크며 사회제도 및 시설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 것은 양육부담을 예측문제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대상자의 지표별 성격유형은 외향성 35.0%, 내향성 65.0%,

Table 6. Parenting Attitudes by Personality of Subject

(N = 206)

Characteristics	Categories	Parenting attitudes							
		Affective		Rejective		Autonomic		Regulation	
		M ± SD	F (p)	M ± SD	F (p)	M ± SD	F (p)	M ± SD	F (p)
Function	Sensing-thinking	40.4 ± 5.9	1.49 (.206)	32.6 ± 4.8	1.60 (.183)	35.4 ± 4.8	1.80 (.140)	39.0 ± 4.4	1.50 (.193)
	Sensing-feeling	40.6 ± 4.9		34.0 ± 5.0		34.9 ± 4.7		39.7 ± 4.4	
	Intuition-thinking	38.3 ± 6.9		32.3 ± 2.0		39.1 ± 7.8		36.0 ± 1.1	
	Intuition-feeling	42.0 ± 4.3		31.7 ± 5.2		36.7 ± 3.3		39.1 ± 2.3	
Temperament	Sensing-judging	41.0 ± 5.2	3.00 (.032) d > c*	32.9 ± 5.2	0.20 (.865)	35.1 ± 4.8	2.00 (.112)	39.6 ± 4.2	1.40 (.224)
	Sensing-perceiving	39.5 ± 6.2		33.1 ± 4.5		35.6 ± 4.6		38.6 ± 4.6	
	Intuition-thinking	35.0 ± 6.0		31.0 ± 4.0		35.7 ± 7.5		36.5 ± 1.0	
	Intuition-feeling	42.0 ± 4.3		32.7 ± 5.0		38.1 ± 4.3		38.5 ± 2.5	

* Scheffe's test

Table 7. Parenting Stress by Personality of Subject (N = 206)

Characteristics	Categories	M ± SD	F (p)
Function	Sensing-thinking	55.2 ± 9.41	7.08 (.000) c > d*
	Sensing-feeling	57.7 ± 10.43	
	Intuition-thinking	59.1 ± 6.94	
	Intuition-feeling	49.1 ± 12.88	
Temperament	Sensing-judging	56.1 ± 9.55	2.28 (.080)
	Sensing-perceiving	55.2 ± 10.82	
	Intuition-thinking	67.7 ± 8.50	
	Intuition-feeling	53.0 ± 14.18	

*Scheffe's test

Table 8. Relationship of Parenting Attitudes and Stress (N = 206)

Variables	Parenting stress by children's characteristic	Parenting stress by mother's characteristic	Parenting stress
Affective attitude	-.400*	-.243*	-.340*
Rejective attitude	.609*	.510*	.599*
Autonomic attitude	-.406*	-.247*	-.346*
Regulation attitude	-.043	-.076	-.066

*p < .01

감각형 88.3%, 직관형 11.7%, 사고형 62.1%, 감정형 37.95, 판단형 60.2%, 인식형 39.8%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Kim, Sim과 Je(1995)가 연구한 한국 여자 일반인 기초표준 분포와는 상이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외향성, 감각형, 사고형, 판단형이 내향성, 직관형, 감정형, 인식형보다 더 많은 분포를 보인 것과는 일치하였다. 기능별 성격유형은 감각적 사고형 60.2%, 감각적 감정) 29.6%, 직관적 사고형 1.9%, 직관적 감정형 8.3%로 직관적 사고형이 가장 많았다. 이것은 한국 여자 일반인 기초표준 분포(Kim, Sim, & Je, 1995)와 비교하여 감각적 사고형은 더 높았고, 감각적 감정형은 비슷한 분포였으며, 직관형 사고형과 직관형 감정형은 더 낮은 분포를 보였다. 기질별 성격유형은 감각적 판단형 59.2%, 감각적 인식형 29.1%로 나타나 한국 여자 일반인 기초표준 분포보다는 더 많았다. 이것은 대상자의 표집 차이에서 볼 수 있는 결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추후 확대연구를 통해 비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애정적 양육태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Park(2006)의 연구에서 애정적 양육태도 가장 높았던 것과 비슷한 결과였으나 연구도구가 차이가 있어 일치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추후 같은 하위영역을 포함한 연구도구를 사용한

연구를 통해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양육스트레스는 최대 120점을 기준으로 55.8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인 아동특성 양육스트레스는 최대 60점으로 기준으로 27.3점, 부모특성 양육스트레스는 28.5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Bak(2007)의 연구결과와 비교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본 연구대상자의 양육스트레스가 더 낮았다. 이것은 표집대상 차이에서 오는 결과로 추측해볼 수 있으며, 건강한 자녀를 두고 있는 평범한 어머니의 경우 보통 수준의 양육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는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 경제상태, 자녀수, 계획된 임신여부, 스트레스 요인, 가족형태에 따라서 양육태도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Cho(2007)가 연구한 결과에서 어머니의 학력, 취업여부, 자녀와의 접촉시간에 따라 양육태도가 차이가 있었던 것과는 같은 결과도 있었지만 조사한 대상자의 배경변수가 차이가 있어 추후 확대연구를 통해 양육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여 일반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는 계획된 임신여부, 최고 스트레스 요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와 같은 특성변수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어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다양한 요인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Kim, 1997; Shin & Chung, 1998)에 더해 양육스트레스 예측변인을 연구할 때 기초자료로 사용되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질별 성격유형에 따라서 애정적 양육태도 차이가 있었는데, 애정적 양육태도는 직관적 감정형 대상자들이 가장 높았으며, 반면에 직관적 사고형 대상자들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Park(2006)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지만 후속연구를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능별 분류에 따른 어머니의 성격특성을 보면, 감각적 사고형은 사실에 관심을 두고 감각을 통해 수집하고 증명하여, 사실적이고 실질적인 것을 선호하며, 감각적 감정형은 감각을 통해 직접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는 개인의 주관성이나 개인적인 온정을 바탕으로 한다. 직관적 감정형은 직관을 선호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새로운 일에 대한 가능성을 중시하며, 따뜻한 온정과 헌신으로 가능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통찰력이 있으면서도 정열적이며, 직관적 사고형은 가능성, 이론적 관계, 추상적인 것을 선호하지만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린다. 기질별 분류에 따른 어머니의 성격 특성을 보면, 감각적 인식형은 자유로운 것을 선호

하며, 감각적 판단형은 위계질서에 대한 신념과 요구를 지니고 있고 책임감이 있으며, 절차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러한 어머니의 성격특성에 따라 아동에 대해 선호하는 양육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직관적 감정형이 가장 애정적 양육태도가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온정과 헌신을 중시하기 때문에 애정적 양육태도가 가장 높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반면에 직관적 감정형은 사고의 객관성을 중시하고 합리적 분석을 좋아하므로 무조건적인 애정적 양육태도가 가장 낮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기능별 성격유형에 따라 유의한 양육스트레스 차이가 있었는데, 직관적 사고형 대상자가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유형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차이에 대한 연구를 찾아 볼 수 없어 비교할 수 없으나, 사고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선호하므로 자녀의 양육에서 합리성과 객관성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특히 다른 성격유형에 비해 스트레스가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애정적 양육태도, 자율적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거부적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Lim(2007)의 연구결과와 비슷하였으며, 긍정적 양육태도일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것은 자녀에 대한 양육에 대한 긍정적이고 편안한 심리적 태도를 가질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도 적게 받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초등학교 어머니의 성격유형에 따라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추후 반복 연구와 확대연구를 통해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어머니의 성격유형을 이해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적절한 양육태도를 가질 수 있는 역동적 성장 프로그램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간호와 교육중재 및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근거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어머니의 성격유형에 따른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자는 D광역시 서구지역 4개 초등학교 학부모회에 가입되어 있는 어머니 206명이었으며, 자료수집 기간과 방법은 2008년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대상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는 MBTI 검사지, MBRI(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PSI(Parenting Stress Index)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처리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평균, 표준편차, t-test와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는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 경제상태, 자녀수, 계획된 임신여부, 스트레스 요인, 가족형태에 따라서 양육태도 차이가 있었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는 계획된 임신 여부, 최고 스트레스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성격유형에 따른 양육태도 차이에서 기능별 성격유형에 따라 양육태도 차이는 없었으며, 기질별 성격유형에 따라서는 애정적 양육태도 차이가 있었다. 성격유형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차이에서는 기능별 성격유형에 따라 양육스트레스 차이가 없었으며, 기질별 성격유형에 따라서는 양육스트레스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애정적 양육태도, 자율적 양육태도인 경우에 양육스트레스는 낮았으며, 거부적 양육태도인 경우에 양육스트레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초등학교 어머니의 성격유형에 따라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가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통해 아동의 긍정적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양육태도를 가질 수 있는 간호 교육중재 및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초등학교를 둔 일부 어머니를 한정된 연구결과이므로 추후 반복 및 확대 연구를 통해 본 연구와 비교할 것을 제언하며, 또한 MBTI 성격유형을 적용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 양육태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성장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Charlottesville: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ae, I. S. (199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utistic children's adaptive behavior levels and their mothers' parenting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s*, 4(1, pt 2), 1-103.
- Bek, Y. S. (2007). *The effect stress and guilt of mothers in raising children have in their attitude of raising children*. Unpublished

-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Cho, I. Y. (2007). *The effect of mothers' parenting attitudes and children' emotion regulation toward children' social competence: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and explanatory variab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Choi, Y. H. (1993). A study on the "goodness-of-fit" model of temperament-context relations (1): Goodness of fit and maternal attitud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6(2), 217-226.
- Han, S. Y., & Park, S. Y. (1996).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the goodness/poorness-of-fit with temperament. *Korean J Pediatr*, 17(1), 245-258.
- Kang, H. K., & Cho, B. H. (1999). Dual-career parenting stress: Effects of mother's values and support systems. *Korean J Pediatr*, 20(2), 41-55.
- Kim, H. J. (2001). *A program for the parents' kid-caring attitude and the guidance for their kids' career and learning, by MBTI personality typ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Ulsan, Ulsan.
- Kim, J. N., Shin, Y. S., Kang, M. S., Kang, Y. S., Koh, Y. A., Kwon, S. J., et al. (Eds.). (2008). *Community Health Nursing*. Seoul: Soomoon Publishing Co.
- Kim, J. T., & Sim, H. S. (1990). *MBTI workshop leader's guide*. Seoul: Korean Psychological Testing Institute.
- Kim, K. H. (1997). The relationships among maternal role efficiency, a view of parent role and parenting stress of working mothers. *Journal of Woosuk University*, 19, 267-284.
- Kim, L. J., & Yoon, J. H. (2000). An ecological study on working mothers' parenting stress. *J Korean Acad Fam Med*, 154, 47-58.
- Kim, Y. A. (1990). *A study of the stress level percept by the married women at home management and it's related variab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Koh, S. H. (1994). A study on parenting stress perceived by mothers. *Korean J Youth*, 18, 21-37.
- Lee, W. Y. (1983). *The relationship of mothers educational view and child-rearing attitudes to child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im, M. A. (2007). *A study of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stress on parents' rearing attitu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Vol. 4). New York: Wiley. (P. H. Mussen, Generl Editor)
- Myers, I. B., & Myers, P. B. (1980). *Gifts differing*. Palo alto, CA :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Myers, I. B., & McCaulley, M. H. (1995). *Development and utilize of MBTI*. (J. T. Kim, H. S. Sim, & S. B. Je (Korean ver.)). Korean Psychological Testing Institute.
- Oh, J. H. (2006). *A study on the effect on rearing-child attitudes and educational views of mothers by reading activ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Park, S. H. (2006). *Analysis of influences of mother's personality on mother's rearing and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Nonsan.
- Penley, J., & Stephens, D. (1998). *Personality types and child-rearing attitudes* (H. S. Sim & M. J. Kwag (Korean ver.)). Korean Psychological Testing Institute.
- Schaefer, E. S. (1958). Development of a parental attitudes research instrument. *Child Development*, 29, 339-361.
- Shin, S. J., & Chung, M. J. (1998). Effects stress, social support and efficacy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19(1), 27-42.
- Song, M. J. (1998). *Developmental psychology*. Seoul: Hakjisa Publishing Co.
- Yang, K. H. (2001). *A study on the marital satisfaction and rearing stress of mother of the autistic children and non-autistic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am University, Kwangju.
- Waters, E., Garber, J., Gornal , M., & Vaughn, B. E. (1983). Q-sort correlates of visual regard among preschool peer: Validation of behavioral index of social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9(4), 550-560.
- Zigler, E., & Trikett, P. K. (1978). I. Q, social competence, and evaluation of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programs. *American Psychologist*, 33(9), 778-798.